

대중결집의 도구 대학문에

대학문화, 어디까지 왔나

(2)

역사적으로 인간은 어떠한 형태든지 자신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표출해 왔다. 아주 먼 옛날 고대인들에서부터 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사회의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 아주 추운 지역의 사람들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 나름대로의 문화적 예술을 만들어내고 그를 향유하며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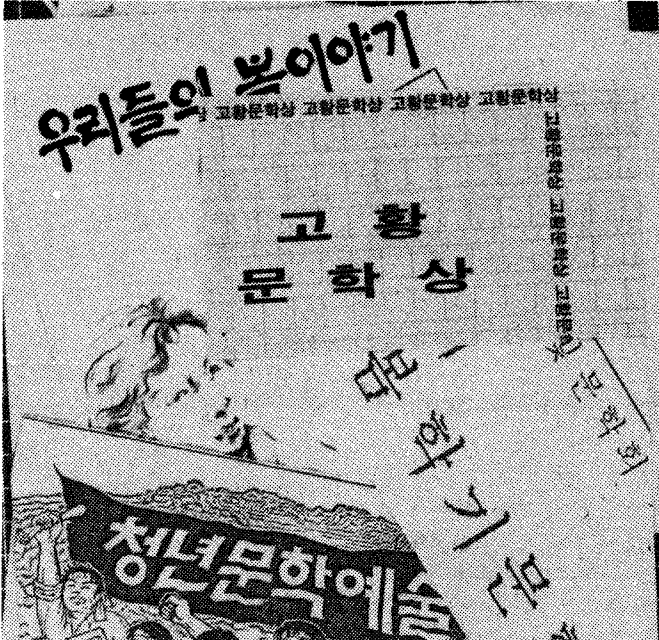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종래의 지역, 동일한 역사속에서도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그 사회의 권력집단의 세계관 및 가치관을 표방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의 진정한 생산의 주체인 민중들의 이해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전자의 것은 그 사회에서 숭배되고 찬양받지만 후자의 것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탄압받는다. 이러한 일은 그 사회가 생산관계를 둘러싼 인간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일이면 어떤 것이든지 탄압받고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중들의 예술이 발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화예술적 욕구 및 능력을 민중들의 해방투쟁에 복무하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진보적 인텔리 예술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서

다 기량이나 역량이 더 못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자신들의 생활을 그려주고 자신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그러면서도 이후의 자신들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하는 자신의 공작 노래의 노래공인이 노동자들에게는 더 재미있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이 두가지 흐름-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진보적 예술 인텔리들의 활동

일제시대의 반제투쟁의 핵심적 내용도 사실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수한 피와 희생의 댓가로 겨우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또다시 미 제국주의와 소수의 독점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에 의해 권력이 장악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투쟁의 전통을 단절당한 우리 민중은 참담한 폐허에서부터 무슨 이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신식민주의 군사 파지즘을 본질로 하는 역대 정권들은 어떠한 형태의 진보적인 움직임이라도 할지라도 아주 폭력적으로 그 싹



대학문에는 70년대 말 '탈출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지배계급의 폭력성에 반발하여 자리잡아갔다

사회 제반모순 폭로 및 전망 제시 주력 향락적 대중문화 배경한 저항정신서 출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 사회의 질서를 그르치지 않는 한 도대에서는 예술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 기회가 부여되지만 만일 이 사회의 모순이나 문제점 지배계급의 비도덕성이나 가진 자의 추악한 면, 혹은 일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자 하면 갖

지 형태의 법률로서 탄압을 받을 뿐 아니라 그러한 예술품들이 생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확보 문제에 있어서나 그 생산물들을 대중들에게 유통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예는 여러군데서 볼 수 있지만 작년의 그 유명한 사건이었던 영화집단 "장산곶매"에서 만든 영화인 "파업전야"에 대한 정부의 탄압 그 하나만을 상기해 보아도 족할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배우 누구누구는 영화 한편씩은 데 받는 겐런티가 수천대를 웃돌고 영화가 만들어지자마자 유통하고 화려한 시설통은 개봉관에서 전국 일제히 상영되지만 그 "파업전야"의 당사자들은 찍어놓은 영화마저도 틀지 못하게 하여 그 고통을 한

여 민중예술은 서서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일제의 예술적 생산물로부터 소외받아 왔기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예술을 배울 시간도 없는 민중진영 내에서도 자신의 문화예술을 생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싹트게 된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이조말기의 평민들에 의해 생산되고 향유되었던 탈춤이나 판소리 등을 상기하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전국 각지의 노동자 및 농민들의 문화회 및 문화집단에 의한 활동으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오리온의 극장에서 행해지는 콘서트나 연주회 보

터 숨통을 조임으로써 자신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지배정권의 극악한 통치 속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는 캠퍼스 공간이었다. 70년대 말 대학내의 '탈출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대학문에는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배계급의 숨을 조이는 듯한 폭력적 지배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강요되는 퇴폐적, 향락적 대중문화정체성에 대한 소박한 저항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곧 이어 노래, 풍물, 연극, 문화등의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고 발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곧바로 예술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 올바른 정리를 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즉, 처음의 이들은 자신

을 '운동하는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순수히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예술 이해를 논하는 한 사람인 '예술의 순수성'이라는 허구를 극복해 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시한줄, 노래 하나가 현실 속에서 갖는 의미를 알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정치와 예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것이었다. 단순한 음악 발표회 공간이나 문화행사 공간이 그 당시로서는 대중들의 자연스러운 모임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술이 바로 대중들을 묶어줄 수 있는 유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현실이 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다.

운동적 관점에서 자신의 활동의 위상을 정립하게 된 것은 대략 8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 시기는 특히 지배계급의 허구적인 자율화 조치가 취해지고 어용학도호국단을 몰아내고 학생대중들이 직접 입원을 선출하는 학생회가 정립되면서 학생운동은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서의 양적 확대를 이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제는 처음부터 문제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운동 동아리들이 광범위하게 생겨난다. 운동대아들의 예술생산물도 공공연히 현 사회의 제반 모순을 폭로하고 이후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맞추어진다. 드디어 '학생문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행해지고 다양한 실천형태가 모색되어지기도 하며 학생문화운동 조직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주목할 일은 학생문화운동 출신의 다양한 문화활동가들의 활동이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바깥 사회운동 내에서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역량이 결집되고 실천이 촉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결국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미적, 예술적 이념을 밝히고 노동자계급해방투쟁에 예술을 그 무기로 하고자 하는 '노동자계급문화운동'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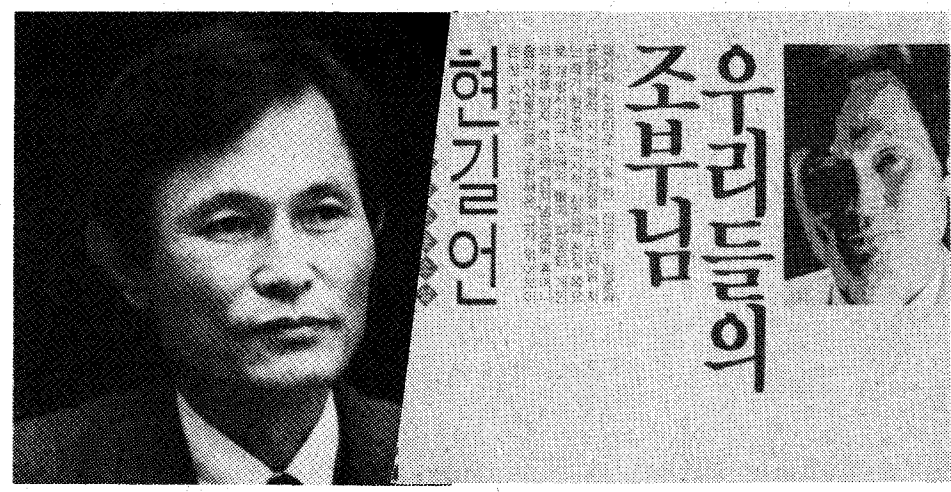
이제 전체문화운동의 중심은 대학이 아닌 노동자계급에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운동의 동맹세력으로 새로운 자신을 규정하는 대학문에는 앞으로는 전체 문화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최 경 남

(노동자 문화예술운동정책실)

4.3의 문학적 수용 피한

현 길 언(한양대·국문학)교수



소설로 다시보는 역사

제주 4.3항쟁이 '불혹'의 세월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현대사 속의 한 사건을 바로 보기위해,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평가하기위해 당시 4.3항쟁을 직접 경험한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길언(한양대·국문학과)교수를 찾았다.

현교수가 간직하고 있는 4.3항쟁, 그리고 항쟁의 '소설적 형상화'라는 문제를 접하면서 이 사건이 '제주'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4.3임을 실감했다. 이에 현 교수 자신의 경험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 문학론 등에 대해 얘기해본다.

—당시 제주에서 직접 본 4.3항쟁에 대해 듣고 싶네.

△해방후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1년이 채 안돼, 동교길에 배려를 보았죠. 또 동네에서 얼굴을 감춘 사람들을 애기도 들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4.3항쟁을 만났죠. 우리집은 중산간 부락에 있었는데, 바로 그해 가을 동네 전체가 빨치산 진압군에 의해 불타버렸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온통 미친 사람들의 아우성속에서 허위뿐인 이데올로기의 폭력이란 것을 체험했고,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절제 가슴에 내려앉더군요.

—그러한 유년기의 체험이 소설을 쓰는 한 계기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내가 겪은 것들을 언젠가 표현해야겠다는 무의식적 충동이 잠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사재를 증언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어떤 광기의 바탕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4.3항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하는 문제는 어려운 숙제인데 같은데 그것은 오늘 상황의 4.3을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바라보는 사람의 정신적인 자유문제일수도 있겠는데.

△나는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4.3의 성격이나 시각을 '주변성'이란 가설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싶군요.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소설적 입장 때문일 것이고, 당시 중심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는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일반적인 틀로써는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바로 주변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심부가 이데올로기 지향적, 주변성이

“폭력에 맞선 벗어나리 개인들의 삶 발원터”

생존지향적이라 할때, 주변성과 제주도는 연결이 되지만, 소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중심부의 억압과 폭력을 견디면서 거기서 탈출하고 대응하려는 것이 주변성의 한 특징입니다. 이는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주변성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 역시 주변성을 지닌 인간들 편에 선 장르이고, 그렇다면 4.3은 소설이 탐구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되는거죠.

—주변성이란 관점에서 문득 소설 '우리들의 조부님'이 떠오르는데, 4.3을 겪은 할아버지의 한(恨)에 대해서 현재의 손자가 울분을 느낀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대부분 소설들이 4.3을 반복해서 배경에 깔고있지만, 작품에 따라 문제적 인물과 행위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조부님'의 경우 화자인 손자는 결국 4.3항쟁이 '오늘에 있어서도 억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4.3을 소재로한 소설은 거의가 중·단편이었고 주로 제주출신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동안 발표된 소설들을 어떻게 보는지 또 4.3의 소설적 형상화 문제는.

△지금까지의 소설은 항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고보다는 우선 사실을 정직하게 세상에 알린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또한 중·단편이 대부분이어서인지 4.3의 부분적인 면을 다룰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사건을 보는 틀도 단선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방대한 분량으로, 증언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며 무엇보다도 지방주의적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현길언 교수는 현재 세 장편소설 '한라산 집필을 마무리중이다. 원고지 7천매의 분량으로 제주4.3항쟁을 다각적 측면에서 다룬 예정이라고 한다.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진 이념의 대립, 그리고 각계각층의 대응방식이 생생하게 표현되는 가운데 획득된 4.3항쟁 소설의 '총체성'이 자못 기대된다.

(김미령 記者)

60년이 걸려 알아낸 진실—
“삶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김도길

테마 에세이집

가장 많은 독자에게 가장 오랜 감동을
심어주는 김도길교수의 사랑 연필문!

사랑은....

60년이 걸려 알아낸 진실, 사랑—
거들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어떤 종류의
드라마로 전개될지 주제? 사랑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알맞은 삶의 주제가
없는 것도 없고 감동인 것도 없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
삶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내는데 60년의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김도길

산문권 280쪽 23,700원
(주)서울문화사
전화: 756-8804 ~ 9 (역시문리 753-1200)

사업가, 기업인, 셀러리맨,
교양인을 위한
‘일본격과’의 확실한 책

일본경제의 저력은 이것이다

시계의 명문 스위스를 쓰러뜨리고
카메라의 본고장 독일을 삼키고 영화의
나라 미국을 집어삼키는 일본경제의
과력을 파헤친 화제의 책!

세계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일본 ‘물’의 정신은 여기까지 왔다

주요내용 ▶ 반도에서 이기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왜 하이테크에서 독일은
일본에게 밀리는가? 일본이 세계
미국을 누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를 로보트로 지배한다!
로보트와 공화민
일본의 미래
국민성(민족)
발달한 나라가
부흥한다! (인간)
비밀전쟁 이야기! (전쟁)

한글판 240쪽 23,700원
(주)서울문화사
전화: 774-3272 ~ 4 FAX: 753-1280

軍·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 위촉서

1. 고졸이상 17~26세
2. 행정병주거부여
3. 매월 단독 입영
4.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유사화원주의

- 사무자동화(OA) 병
- 차트(일반행정) 병
- 타자행정 병

인성학원
730-6946~7
종로1가 무과수제과 2층

유니타자학원
735-2323, 9716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옆

초승달

R.타고 지음/김양식 옮김

타고—
혼탁한 마음을 울리는
그 맑은
영혼의 음파

초승달은
어른들의 잃어버린 꿈
아이들의 맑은
소망입니다.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신출판사
전화 720-5990-1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 津 教授 著

英語構文論

구문도해

양장본 ₩ 8,600

TOEFL·VOCABULARY & TOEIC 이 책
동을 보기에 SYNTAX
제5형식 도해부터 연구하
라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추천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지 상 강 의 서
기 초 · 영 어 구 문 론
₩ 5,800

- 이우리 Conversation
• 김도호
• 이우리 hearing이 급해
도 영어연구의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성강의서 기.
초구문론으로부터!!!

百萬社
서울·충무로 267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벌써부터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인 영어회화·S.L.E코스
(각반 12명 정원/강사전원 석·박사출신 미국인/12달완성)
미국 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LADO회화

ENGLISH영학·TIME·영어순화(독해)·TOEFL·종합영어
·고득점TOEFL·종합학·GRE·GMAT·문법·영어실력기초
VOCABULARY·AFKN정화·TOEFL L/C·무역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11本語
·표준일본어·NHK 일본어정취·러시아어·러시아인 회화
프랑스인회화·독일어·중국어·중국어회화·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신헌학소수법
·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정전발공·수료증취득
·과학적이고 정밀분석된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배정
하는가???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빌빌 274-4000
다들 학기 예약중중중
강남·압구정역 동호대교길 한빌빌 515-4020

파고다

외국어
학
원